

‘합계출산율 전국 2위’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 효과 ‘톡톡’

도입 후 출생아수 85.9% ↑ ...관내 거주 인구 순증 효과 84개월간 1인당 60만원 지급...다자녀 출산 비율 47.9%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지속적인 출생아 증가세를 기록하며 저출산 극복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58명으로 군 육아수당 도입 전 같은 기간(2022년 1-11월) 85명과 비교해 73명이 늘거나 85.9% 증가했다.

강진군의 출생아 수는 2011년 471명에서 2022년 93명으로 12년 만에 80% 급

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2022년 10월 육아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 154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5.6%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강진군 출산율 증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2%로 나타나 인구 유입이 아닌 강진군 내 인구의 순증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은 84개월간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제도다. 2022년 10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월 351명의 대상

자에게 총 32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168명으로 다자녀 출산 비율이 47.9%에 달해, 육아수당이 첫 아이 출산뿐만 아니라 다

자녀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대상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확인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육아수당 정책은 12년 만에 강진군 출산율을 반등시킨 핵심 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군의 현금성 우수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도입한다면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육아수당 정책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와 인구 순증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정영록기자

‘영암 맘 안심프로젝트’ 1호 고향사랑지정기부 조기 달성

모금 171일만에 5천10만원 성과...30대 참여자 42%차지

영암군의 제1호 고향사랑 지정기부인 ‘영암 맘(mom) 안심프로젝트’ 모금이 전국 371건 참여자들의 성원으로 조기 달성됐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 맘 안심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 개원할 영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료기기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부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지정, 모금 171일만에 5천1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2억2천만원의

목표로 처음 추진돼 한 달 동안 이어진 모금에서 1억7천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됐지만,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했고 올해 지정 기부로 그 차액을 기부받기 위해 실시됐다. 371건의 기부 중 30대 참여자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암군은 초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30대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낼 의료기기 구입에 공감하고 기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원이 73%인 273건으

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도 11건으로 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48%로 가장 높았지만, 광주·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고른 기부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암군은 기부금을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출력 심장충격기, 비접촉식 수면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38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가치 기부가 공감을 얻고, 세액공제가 고향사랑기부의 강력한 동기

임을 이번 지정기부로 확인했다”며 “전국에서 정성을 보내준 371명의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며 누구나 공감하는 가치 기부와 기부사업으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뿌듯함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20년 만에 개설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의 내년 운영비를 모금하는 지정기부를 진행 중이다.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의 시종2모금인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비 지정기부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암=나동호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조사단 모집

섬·연안 지역 대상...17일부터 전문인력·시민과학자 등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0일 “오는 17일부터 2025년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과 시민과학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사업은 전국 섬과 연안 지역의 자생생물자원을 대상으로 7개 분야의 생물자원 분류군별 전문가와 시민과학자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7개 생물분야는 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균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등이다.

2024년에는 242명의 외부연구원(전문가, 준전문가, 시민과학자)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원과 함께 전국 21개 섬·연안 지역의 생물자원 조사를

통해 신종·미기록종 151종과 생물표본 3만4천835점을 확보한 바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5년도 생물자원의 분류군별 조사와 더불어 섬과 연안 지역의 자생생물의 확증정보(표본·화상·유전자 등)를 확보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nibr.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균 도서생물자원연구실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과학자가 함께 섬·연안 생물자원의 실재를 파악하고 국가 생물주권 확립에 기여하는 큰 의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신안군, 예술·독창적 공공건축물 설계 추진

문체부 시범사업 선정...‘아키텍트 건축사’와 수의계약진 진행

신안군은 10일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부터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건축가를 대상으로 매년 3명의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를 선정,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최근 5년간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총 15팀을 대상으로 ‘신안군 건축설계를 위한 건축가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필동2가 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필동2가 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조경빈(38) 건축가는 올해

총 40팀이 참가한 ‘젊은 건축가상’ 선정 공모에서 당선된 수상자다.

그는 “단정하고 공간으로 표현되는 절제되고 이성적인 건축 언어들은 사회적 환경을 책임지는 건축가로서 공공성과 감수성을 보여준다는 우수한 심사평을 받았다.”

신안군은 조경빈 건축가와 함께 2025년부터 발주할 수의계약 범위 내의 건축설계 사업을 도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롭고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 모두가 만족할 만큼 예술성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무안군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무안읍 불무공원에 높이 10m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 군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읍 불무공원, 10m 대형 트리 설치

오후 6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점등...내년 2월까지 운영

무안군은 10일 “연말연시를 맞아 무안읍 불무공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희망의 불빛, 10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불무공원에 설치된 대형트리는 색색의 조명과 산타할아버지가 가져온 풍성한 선물 상자들로 구성됐으며, 공원 주변 각종 야간경관 조명과 어우러져 명운동을 시작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 모두 트리를 보며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이다.

대형 트리는 일몰과 일출에 맞춰 자동 조절되고 오후 6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점등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 이벤트 ‘풍성’

평일 모든 프로그램 최대 50% 할인...커플·수험생 혜택도

완도군이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 ‘1’이 들어가는 사람은 평일에 모든 프로그램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남녀 커플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명이 1명 가격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을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아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주간도 운영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한 후 네이버 영수증 리뷰 또는 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증정하고, 개인 블로그에 체험 후기(사진 5장, 글자수 500자 이상)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해양치유 여행 선물 세트를 증정하는

후기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양치유센터 이용권도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판매한다. 기본 프로그램 이용권은 30장 이상 구매할 경우 60% 할인하며, 프리미엄 이용권은 10장 구매 시 30% 할인, 20장 구매 시 40% 할인, 30장 구매 시 50% 할인 받을 수 있다.

해양기후치유,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 이용권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 할

인한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수험생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5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완도에서 힐링하며 특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사진은 센터에서 해조류 거품 테라피를 받고 있는 관광객들 모습. <완도군 제공>

영광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범 군민 서명운동 돌입...호남 정치권 공동 대응

영광군 등 5개 시·군이 서해안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범군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군산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호남 서해안권(영광, 함평, 고창, 부안, 군산) 5개 시·군이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노선 반영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범군민 서명운동은 지난달 고창군청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에서 5개 시·군 지자체장이 모여 호남 서해안권 철도 인프라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해안 철도 노선 반영을 촉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다.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는 2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내년 1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호남 정치권과 함께 공동 촉구 활동에 나선 계획이다. /영광=김동규기자